특별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안중현

얼마 전 광주에 거주하시는 이상문 애국지사님의 생신을 맞아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으로 근무하면서 항일독립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다 옥고를 치뤘고, 그 공로로 작년도에 건국포장을 수여받아 뒤늦게나마 공적을 인정받으신 독립유공자이시다.

지사님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청력은 떨어지셨으나 항일 독립투쟁 당시의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다. 일본인 교수가 지사님이 활동하셨던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관한 책을 발간하였고, 현재는 재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일본인 교수와 만나게 된 인연을 이야기하셨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에 묻혀있던 일본인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 2구만 이장되고 1구는 이장되지 않았는데 이유인즉 1구의 국적이 조선인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이장하지 않았던 조선인은 '양칠성'이란 분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영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국군묘지에 안장되었다. 조선인 '양칠성'을 세상에 알렸던 분이 일본인 교수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 교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국 지킨 많은 영웅들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5월 25일 62년만에 조국의 품에 돌아온 국군 장병의 유해 봉환행사가 생각났다. 1950년 12월 UN군과 함께 북진하여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였다 전사한 국군 12위 유해가 62년만에 조국으로 봉환된 것이다.

국군의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공항으로 나가 거수경례를 하며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였다.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웅들의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수 많은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이 항일투쟁에 헌신하여 35년만에 광복을 이루어냈다. 6·25전쟁 3년 동안 수 많은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특히, 6·25전쟁에는 세계 21개국에서 파병된 UN군 175여만명이 참전하였고, 이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 땅에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치며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현재 우리나라가 6·25전쟁 60여년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정신과 UN참전용사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충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57회 현충일이다. 광주공원 현충탑 등 광주, 전남·북 현충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그동안 중앙추념식에서만 거행됐던 롤콜행사가 지방추념식에서도 실시돼 지역 출신 호국영령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불러준다. 또한 현충일 추념식장 인근과 주요 교차로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1분간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추모묵념을 올린다면 더욱 값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광주지방보훈청장〉

사설

수학여행버스 안전불감증 도를 넘었다

최근 광주지역 수학여행 버스기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 특히 여행업계는 학교 측 점검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 계약 때와 달리 출발 당일 노후차량을 투입하거나 부적격 운전자를 배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4일 음주상태에서 수학여행용 버스를 운전한 오모(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오씨는 이날 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광주 광산구 차고지에서 북구 문우초교까지 수학여행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면허정지 수치인 음주상태로 다수 학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려 했다니 과연 정상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학여행 버스기사 음주사례는 불과 일주일 사이 두번째로, 지난달 29일 운리중에서 알코올농도 0.068%인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려던 김모(42)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출발전 사전 대비를 했기 망정이지 만일 그대로 방치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 어쩔 뻔 했는가.

여행업계와 버스기사들의 안전불감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공공연한 비밀로 드러나고 있다.

또, 여행업계가 학교와 맺은 계약 위반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광주 한 중학교 체험학습에 부적격 운전기사를 보냈다 교체됐는가 하면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는 애초 계약과 다른 불량버스 5대를 투입했다가 뒤늦게 퇴짜를 맞기도 했다.

이는 여행업계의 차량·운전기사 수급이 수학여행 성수기 수요를 따르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다수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업자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버스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수학여행 시기 조정, 교통수단 다양화 등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백일해 목포까지 확산 보건당국 뭘하나

영암지역에서 집단 발생한 '백일해'가 인근 목포에서도 확인돼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백일해 확산은 전염성이 강한데도 보건당국이 예방 접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지난 1일 백일해 의심환자 12명의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목포 옥암중 1명, 제일중 1명, 문태고 1명 등 모두 3명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당국은 발병한 학생들이 첫 백일해가 발생했던 영암지역 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백일해 의심환자는 227명으로 늘었고, 이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영암 삼호읍과 무안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기침과 콧물, 인후통 등 백일해 의심증세를 보이고 있어 2차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주먹구구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영암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큰데도 학교마다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방치나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의심환자들에게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 항생제를 처방 받으라는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백신 접종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마저 사고 있다.

보건당국은 1세 미만에 필수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면 중학생 연령 때까지 면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감염된 다수의 학생이 백일해를 전염시킬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

보건당국은 지금까지의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백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치료제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영암과 목포를 비롯한 일선 시·군도 전염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 접종 등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⑰

네팔에서 가르치는 즐거움

박행순

나는 한국에서 정년퇴임 후 네팔의 대학에 와서 가르치면서 뜻밖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 어떤 미국인 방문 교수가 나보고 "이런 재미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니 학교에 돈 내고 있어라"고 농담을 한 적도 있었다.

봉급을 받지 않는 대신, 대학에서는 초청비자(gratis visa)를 받게 해주었고 꽤 괜찮은 숙소를 구내에 마련해주고 세 끼 식사도 병원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바깥사람들은 숙소에 온 종일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가장 부러워한다. 관광객들에게 만 오천 원을 받는 왕궁 박물관도 나는 무료입장이었다. 분명 이런 다양한 혜택을 즐기고 감사하지만, 내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이다.

모든 강의는 최대한 축약하여 파워포인트로 진행하고 강의파일을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학생들을 9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PBL(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으로 각 분야별 사례를 한 주 동안 2시간씩 3회,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포함하여 총 7시간에 걸쳐 토론식으로 교육한다.

PBL 담당 교수들 역시 토론을 통하여 사례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는 사전 미팅이 있다. 해당 사례의 전공자가 기초 자료와 질문내용, 답까지 나와 있는 PBL 교재를 매주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읽고 준비를 해야 한다. 약간의 부담이 있고 긴장도 되지만 시례들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맡은 PBL 그룹은 여학생이 다섯, 남학생이 넷이다. 적절한 질문으로 토론의 흐름을 잡아주고 시간을 조절하면서 나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가설을 세우고 공부해온 것을 서로 토론하는데 눈빛들이 살아있고 PBL 시간에 많이 웃는다. 마지막에 각자 느낀 점을 나누고 그날의 자체 평가를 할 때, 진행 교수가 자기들을 잘 이끌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

지난 5월 초에는 바이바(Viva)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했는데 우리나라 의대의 소위 '땡시험' 같은 것이다. 정확히 5분마다 벨이 울리면 바로 다음 분야로 이동한다. 쉬는 시간에 돌아보니 문답, 간단한 실험, 계산, 슬라이드 판독 외에 바짝 마른 사체도 한 구 시험 문제로 올라와 있다. 1학년들은 너무 긴장한 듯 대답이 미흡했지만 2학년들은 진찰도 문제로 등장했는지 청진기까지 목에 걸고 제법 의젓하게 답변을 잘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TV 쇼에서 보는 제퍼디(Jeopardy)라는 학습용 게임도 진행했다. PBL 그룹별 경쟁을 통하여 답을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최우수 팀은 큰 초콜릿 상자를 상품으로 받았는데 모두가 즐기면서 배우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한국에서는 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그리고 학생지도였다. 대학원생은 물론이고 학부생과도 지도교수제도에 따라 몇 년 동안 함께 하다 보면 사제간에 정이 쌓였다. 여기 교수들은 교육 외에는 학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 설명을 듣고 이상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는 강의 외에는 학생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나는 내 그룹 학생들에게 개별 상담을 제안했더니 모두 좋아했다. 절대 진리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학생, 비싼 학비,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 고충도 털어놓는다. 그러나 공통주제는 졸업 후 무의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장학금을 받지 않아서 무의촌 봉사 의무가 없는 학생들도 같은 말들을 했다. 남들에게 하지 않는 마음속 이야기를 나는 이해할 것 같아서 말한다고 했다.

나는 이 대학의 비전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가슴에 열정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격했다. 남학생들과는 악수를 하고 여학생들은 가볍게 안아 주었다. "선생님, 제가 이날을 기억할 거예요"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한 여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그날 이후, 나는 이곳에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K-Pop에 고한다

문호경

언제부터 K-Pop(이하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해외에도 케이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SNS의 개인 프로필에도 케이팝 가수들의 사진을 올리는 외국인들이 상당하다. 아이돌 1세대에 비하면 크나큰 성공이다. 이러한 성공은 경제적 성과로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아이돌과 그 소속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 케이팝은 엄청난 상업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무대에 한국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팝의 성공이 단지 긍정적이기만 할까?

좋은 대중음악이란 대개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은 가사가 있으며 그시대 대중들의 삶을 반영하고 정서를 순화한다. 그런데 케이팝이 가장 비중을 두는 건 상업성이다. 물론 대중 음악이 음악교과서에 나올법만한 기능만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돈벌이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케이팝을 보면 백번도 넘게 나오는 같은 말의 외계어 후렴구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장난이다. 그저 현란한 전자음에 무의미한 음향만 늘어놓는 것이다. 그것도 그런 소리를 공연장에서 직접 읊어대지 않고 녹음한 음원을 재생하면서 그저 몸만 흔들어대니 예술성은 죽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음악은 시각적 쾌락을 통해 돈을 벌려는 미끼일 뿐이다.

매스미디어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중은 노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전자음이 얼마나 현란한지, 가수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를 보고 애정을 쏟는 경향이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중음악계와 모델계가 유사어로 쓰일 수도 있다. 패션쇼도 음악이 흐르면서 의상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요즘 아이돌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이 음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무기력한 존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부터 개그프로그램에서 모순적인 사회현상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정치계에도 공격을 가한 '용감한 녀석들'의 돌풍은 대중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목소리인 듯하다. 그들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평범한 리듬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이돌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지루한 가사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은 용감한 녀석들의 '개념가사'에 빠져들었고, 이러한 인기는 앨범발매로도 이어졌다.

음반의 종류 중에는 컴필레이션(compilation)음반이라는 것이 있다. 대체적으로 컴필레이션은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이 실려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시대 컴필레이션 음반을 보면 가사에 많은 생각을 담았던 김광석이나 음악계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온 노브레인의 곡처럼 시대의 상징적인 명곡들이 수록되었다.

이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명곡을 다룬 컴필레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시대 컴필레이션의 성격상 히트를 기록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명곡을 수록해야 한다. 과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곡들을 수록할 자신이 있는가? 설마 영어가 어색하게 끼워져 있거나 외계어로 점철된 노래를 컴필레이션에 넣을 것인가? 적어도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은 이상한 컴퓨터음악에 되지도 않는 영어도 섞어가면서 외계어를 사용해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말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은 아이돌이고 아이돌의 노래들이 그러한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음악들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앞에서 제시한 음악의 긍정적 기능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한국대중음악계의 주인공들이라면 슬픈 일이다.

〈광주제일고 3학년〉

無等鼓

주폭(酒暴) 처벌

한국 선불교의 대종사이자, 깨친 이후에도 술과 고기를 먹고 문둥병에 걸린 여인과 동침까지 했던 경허스님(1849~1912)에 관한 일화 한 가지. 당시 지리산 화엄사에서 대강사로 유명하던 진응스님이 경허스님께 좋은 술과 안주를 올리면서 '왜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지'를 물었다.

"돈오(頓悟-단숨에 깨침)하여 이치를 깨달음은 부처님과 똑같지만, 다생(多生)으로 익혀온 습기(習氣)는 오히려 생생하구나. 바람은 고요해졌지만 아직 파도는 솟구치는 듯, 이치는 분명해도 제 버릇은 그대로 일세."

경허스님의 답변에는 '단박에 부처의 자리를 깨달았지만, 몸과 생각은 여전히 깨닫기 전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과거의 업장을 지우기 위한 고뇌와 분투가 담겨있다.

부처나 예수에 비견되는 인도의 대명상가 라마나 마하리쉬(1879~1950) 역시 "깨달은 자도 얼마 동안은 육체의 이러저러한 행위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 그것은 선풍기 전원을 꺼도 한동안은 날개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생과 현생의 업보로 인한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큰 스님이자 대 명상가인 이들의 이야기에는 '머리로 깨닫기는 쉽지만, 깨달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실천적 체험이 녹아들어 있다.

최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酒暴·주취폭력배)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음주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술 마시면 사고 칠 것을 빤히 알면서도 술을 마셔 민생을 침해하는' 이들 주폭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문화가 술주정에 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경허스님 같은 대선사도 과거의 다생습기를 없애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추태를 반복하는 이들 주폭의 행태가 법으로 강제한다고 얼마나 고쳐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월요일 자주 발생하는 심근경색…스트레스 주의해야

우리나라 40~50대 넘어서는 성인 남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위험성 질병은 바로 뇌졸중과 심장마비 아닐까. 전문용어로 심근경색이라 하는데 이런 갑작스런 사고시 대처하기 위해 가정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게까지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정도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아예 대도시 빌딩과 아파트 단지, 혹은 공공기관에는 심폐소생을 시키는 심장박동기를 설치해 놓기도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

가장 위험하고도 무서운 적인 심장마비는 월요일에 자주 일어난다.

얼마 전 TV의 건강관련 코너에서는 월요일에 심장마비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알려주었는데 참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흔히들 '월요병'이라고들 말한다. 이는 머릿속에서 "월요일엔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꽉 차게 되어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시작된다. 즉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고, 이 스트레스의 시작이 바로 쉬는 시간 혹은 휴일에도 회사에 가서 일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도 일요일 오후부터는 월요일 출근걱정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월요일에 스트레스를 받아 갑자기 심장 혈관이 막혀 응급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그 타이밍 역시 월요일에 출근해서 오전 8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심근경색은 심장을 뛰게 하는 혈관이 막히는 질병으로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이를 의심해봐야 한다.

월요일에 갑자기 직장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혈압이나 맥박을 올릴 수가 있고, 주말에 과도한 음주나 육체적인 활동들이 간접적으로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엔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긴장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중년남성들 모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했으면 한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